천·년·의·비·상
전라북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보고서

2020. 9.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연구 수행 절차 ····· 2

제2장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배경 ····· 3

제1절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 ····· 3

제2절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 5

제3장 전라북도 사회복지 현황 ····· 7

제1절 전라북도 일반 및 복지현황 ····· 7

제2절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 9

제3절 전라북도 사회복지 예산현황 ····· 9

제4장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주민의견조사 ····· 10

제1절 설문조사 결과 ····· 10

제2절 초점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 21

제3절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 ····· 25

제4절 공청회 결과 ····· 28

제5장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 30
제1절 타시도(2019년 설립) 사회서비스원 비교분석 ····· 30
제2절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방향 ····· 33
제3절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모형 ····· 39

제6장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분석 ····· 45
제1절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 ····· 45
제2절 분야별 타당성 검토 ····· 45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입한 민간기관과 개인 사업자들은 경쟁구조에서 생존해야 했고 사회서비스 수요에 기반한 고용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제공인력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 환경이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17-2)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을 제시하였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를 위한 법률이 발의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부응하여 “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본방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 7월에 발표되었으며 국정과제(국정과제 17-2: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의 하나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계획이 반영되었음.

○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현재 4개 지역(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7개 지역(충남, 강원, 광주, 세종, 인천, 대전, 전남)은 설립 준비중임.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민간중심 확대는 제공기관의 재정이 서비스 이용자 수와 법인의 재정능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임. 이는 양질의 서비스 운영 한계 및 제공인력의 저임금 근로로 인한 고용불안을 야기함. 사회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와 제공자, 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이익이 향상되는 운영체계도입이 필요함.

○ 전라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하면, 전북 14개 시군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임실)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복지수요가 높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간(도시-농촌) 불균형으로 복지시설의 인프라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임. 전라북도 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은 대체로 시

부(전주, 군산, 익산)에 집중되어있지만 생활시설은 완주, 익산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도 지역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시설 및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해소,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담아내는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목적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실태를 반영한 전북형 사회서비스원 모형과 운영방안을 개발하는 데 있음. 전라북도 사회서비스환경을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사회서비스 수요자 및 제공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도모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배경, 전라북도 사회복지의 수급 진단, 전라북도 사회복지 환경, 복지, 자원현황,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주민 의견 조사,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역할 및 발전 전략,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임.

제3절 연구 수행 절차

○ **연구수행 절차** : 기존 문헌 자료 수집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현황조사 및 전북도민조사 → 중간보고회 및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타당성 검토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역할·기능·운영방안 검토 및 의견반영

제2장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배경

제1절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

○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을 구현하는 요소 중 하나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유형은 상담, 재활, 성인 및 아동 돌봄, 보건 의료 및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총 10개 유형으로 대별됨.

○ 사회서비스는 부분 경합성과 부분 배제성을 갖는 준공공재적 특징을 갖고 있음. 대인 서비스인 경우, 다른 공공재와는 달리 서비스 혜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가분성을 갖는 공공재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 : 2000년대 이후 경제·사회·인구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범위, 속도, 양적 측면의 변화가 복지부문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증대와 함께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임. 사회서비스는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청년실업, 소득 양극화, 주거 불안 등 다양한 사회불안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소규모 기관의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사회서비스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제공기관의 설립 주체를 민간으로 다변화하여 왔으며, 사회서

비스에 대한 이용률 증가 및 이용자의 재이용 의향 증가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또한 증가함. 이에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대응 및 사회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과제가 대두됨.

○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사회서비스 설립 주체가 민간으로 다변화 됨에 따라 다수의 민간 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과도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시설의 신설과 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 양질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시설 등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대안 모색 필요 :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위탁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불안하고 각 시설의 분절적 운영으로 체계적·균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하고 공공 직영방식은 시설 운영 책임주체가 명확하고 투명한 시설운영과 종사자 고용불안 해소가 가능하나 민간영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환경변화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기대증대 : 전라북도는 출생아 수의 감소, 전국 대비 높은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높음.

○ 전라북도 출생아 수(2020년 기준)는 전라북도 출생아 수는 -10.67%로 감소하고 있어, 전국 출생아수의 감소(연평균 -8.83%)보다 빠른수치로 감소하고 있음. 출생아수 감소는 지역 내 인구감소를 빠르게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 고령인구비율(2020년 기준) 21.1%로, 전국에서 가장높은 전남 23.3%, 경북 21.4%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나아가, 전라북도 고령 인구는 2015년에 이미 전국 고령 인구비율인 13.1%보다 훨씬 상회하는 17.8%를 나타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1.1%가 고령인구임. 이와 같은 고령인구의 추이는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노출되는 고위험군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해 전라북도 도민의 절반이상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과반이상이 공공성이 강화되거나 매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있었음. 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봄.

제2절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 2017년 새 정부 출범 후, 국정비전과 5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같은 해 7월 20대 국정 전략을 설정하고, 이 전략별로 100대 국정과제, 43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하여 발표함.

○ 100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국정과제는 6개 과제가 있으며, 국정과제 #17, #42, #43, #44 #45, #48이 있음. 국정과제 #17의 주요 내용은 #17-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7-2. 사회서비스공단설립, #17-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임.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구체적인 미션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복지협력공동체구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것임.

○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은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임. 현재는 지자체가 국·공립시설 운영을 주로 민간법인 등에 위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규 설치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 시설, 기타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서비스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규 국·공립 시설 설치계획은 2022년까지 보육시설 510개소, 요양시설 치매전담 344개소 등이 있음.

○ ‘종합재가센터’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함. 예를 들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를 종합 제공함. 2019년 10개소에서 2022년에는 136개소까지 확대 예정.

○ 사회서비스원의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며 재정지원,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 등을 실시함.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및 운영지침 마련, 평가업무 등을 지원함.

○ 광역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시범사업 운영 및 재원확보, 사업범위 및 규모 확정, 품질향상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지원함. 기초 지자체에서는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을 실시함.

제3장 전라북도 사회복지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일반 및 복지현황

○ 행정구역은 6시군 8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8,069.13㎢ 규모임. 행정구역별 면적을 살펴보면 완주군이 821.06㎢로 가장 넓고, 전주시 206.04㎢로 가장 작아 시·군 간 면적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복지기관 반경 3km 이내에 포괄되지 못해 사회서비스 및 복지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전라북도 총 인구는 829,789세대, 1,807,094명으로 성비는 남성 49.7%, 여성 50.3% 비율을 보임. 시·군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주시(33.8%), 익산시(15.4%), 군산시(14.5%)등 순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연령대별 인구 구성 분포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전국 대비 구성비가 10대 미만 7.3%, 10대 9.8%, 20대 11.7%, 30대 10.6%, 40대 15.0%이며 50대 16.6%, 60대 이상 29.0%으로 전국 대비 60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가 많음.

○ 전라북도의 청소년 인구(9세-24세)는 2020년 8월 기준 306,946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약 17.0%를 차지하고 있음. 전라북도 청소년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청소년 인구 비율인 16.6%보다는 다소 높은 편임.

○ 전체인구 대비 학령기 인구의 비율은 2018년 16.6%에서 2045년 11.6%로 약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학령기 인구의 감소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과소화의 문제 그리고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 문제 등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 전라북도 고령인구비율은 2020년 8월 2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23.3%, 경북 21.4% 다음으로 세 번재로 높은 수준임. 전라북도 고령인구비율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3.46% 증가하여 노령인구 증가율은 중간정도임. 하지만 2015년에 이미 전국 고령인구비율인 13.1%보다 훨씬 상회하는 17.8%를 나타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1.1%가 고령인구임.

○ 전라북도 사회복지 대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전라북도 사회복지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1,453,047명, 63.0%)이며, 노인(370,676명, 16.1%), 아동청소년(295,903명, 12.8%) 순으로 나타났음.

○ 2019년 전라북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현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전주시(292,538명, 28.4%)이며, 익산시(181,556명, 17.6%), 군산시(152,729명, 14.8%)순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노인 인구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9년의 전라북도 노인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전주시(93,161명, 25.1%)이며 익산시(53,525명, 14.4%), 군산시(48,059명, 13.0%)순으로 나타났음.

○ 전라북도 장애인 인구는 2013년부터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019년의 전라북도 장애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전주시(368,672명, 25.4%)이며 익산시(224,579명, 15.5%), 군산시(196,733명, 13.5%)순으로 나타났음.

○ 2019년 전라북도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이었으며, 익산시보다 군산시 영유아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라북도 한부모 가족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전주시(전주시가 3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익산시 21.18%, 군산시 13.96%순으로 전주시가 한부모 가족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시군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주시(120,748명, 40.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군산시(46,975명, 15.9%), 익산시(46,484명, 15.7%)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2절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 전라북도 사회복지 시설 현황 : 2020년 6월 기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은 총 3,123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시설은 157개소로 5.0%를 차지하고 있음. 전라북도 사회복지 종사자는 40,183명이며, 이들 중 국공립 시설종사자는 2,435명으로 6.1%로 나타남.

○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또한 민간 법인과 각 시군의 역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시설은 전주시(23.7%), 군산시(14.8%), 익산시(13.7%)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제3절 전라북도 사회복지 예산현황

○ 2020년 전라북도 예산의 총 규모는 8,309천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6,665천만원, 특별회계 631천만원, 기금 1,013천만원으로 구성되었음. 이 예산 중, 사회복지 및 보건관련 예산은 3,160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0%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전라북도의 투자가용재원은 전체예산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5,149천만원으로 전라북도의 재정규모는 3,023천만원임.

제4장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주민의견조사

제1절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반시민, 사회서비스 수요자, 종사자임. 조사 대상은 일반시민, 수요자. 종사자 각각 2:3:5의 비율로 1,100명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 지역을 단위로 추출하였음.

○ 조사대상은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각 시군별 인구수를 파악 후 지역별 비율에 따라 비례할당표집추출을 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1:1개별 면접 방법을 기반으로 집합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이며 표본에 대해 단일한 설문지로 조사하였음. 설문지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현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의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A, B, C 영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설문지의 총 문항수는 36문항임.

2.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사항

○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일반시민, 사회서비스 수요자 및 종사자의 일반사항은 다음 [표 1-1]과 같음.

[표 1-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사항

(단위: 명, %)

구분		전체 (N=1,040)	도민·사회서비스 수요자 (N=537)	사회복지 종사자·관계자 (N=503)
지위	시설 대표자·운영자	48(4.6)	-	48(9.5)
	종사자	363(34.9)	-	363(72.2)
	공무원·전문가	92(8.8)	-	92(18.3)
	이용자	323(31.1)	323(60.1)	-
	도민	214(20.6)	214(39.9)	-
성별	남자	410(39.4)	254(47.3)	156(31.0)
	여자	630(60.6)	283(52.7)	347(69.0)
연령대	10대-20대	167(16.1)	97(18.1)	70(13.9)
	30대	225(21.6)	87(16.2)	138(27.4)
	40대	267(25.7)	123(22.9)	144(28.6)
	50대	224(21.5)	98(18.2)	126(25.0)
	60대	97(9.3)	73(13.6)	24(4.8)
	70대이상	60(5.8)	59(11.0)	1(0.2)
사회서비스 관련 근무경력	3년미만	136(13.1)	13(2.4)	123(24.5)
	3-5년	117(11.3)	14(2.6)	103(20.5)
	6-10년	105(10.1)	11(2.0)	94(18.7)
	11년이상	91(8.8)	5(0.9)	86(17.1)
이용 및 근무기관 유형	모름/응답거절	591(56.8)	494(92.0)	97(19.3)
	아동·청소년	152(14.6)	89(16.6)	63(12.5)
	노인·장애인	373(35.9)	170(31.7)	203(40.4)
	여성·가족·정신보건	100(9.6)	29(5.4)	71(14.1)
	지역사회복지	210(20.2)	124(23.1)	86(17.1)
	관공서·연구기관	205(19.7)	125(23.3)	80(15.9)
거주지역	전주시	394(37.9)	173(32.2)	221(43.9)
	군산시	116(11.2)	59(11.0)	57(11.3)
	익산시	75(7.2)	49(9.1)	26(5.2)
	정읍시	57(5.5)	31(5.8)	26(5.2)
	남원시	45(4.3)	28(5.2)	17(3.4)
	김제시	74(7.1)	31(5.8)	43(8.5)
	완주군	30(2.9)	16(3.0)	14(2.8)
	진안군	22(2.1)	19(3.5)	3(0.6)
	무주군	40(3.8)	28(5.2)	12(2.4)
	장수군	43(4.1)	29(5.4)	14(2.8)
	임실군	33(3.2)	20(3.7)	13(2.6)
	순창군	38(3.7)	10(1.9)	28(5.6)
	고창군	29(2.8)	19(3.5)	10(2.0)
	부안군	44(4.2)	25(4.7)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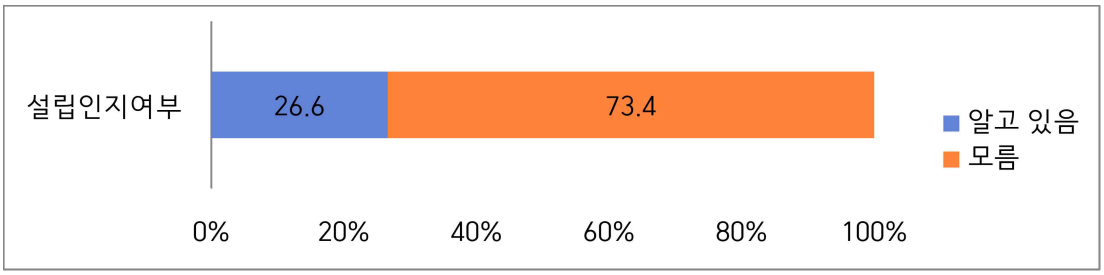
○ 응답자는 대부분 여성(60.6%)이었고 연령대는 30대(21.6%), 40대(25.7%), 50대(21.5%)가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40대가 가장 많았음. 응답자 지위의 절반 이상은 사회복지 종사자(51.3%)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3년 미만(13.1%)이었음. 가장 많이 이용 및 근무한 사회서비스 기관 유형은 노인 및 장애인(35.9%)기관이었음. 응답자의 다수는 전주시(37.9%)에 거주하고 있었음.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지 및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만족도

(1)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지 관련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인지에 대한 응답([표 1-2])를 보면 매우 잘 알고 있음과 조금은 알고 있음을 합해 볼 때 26.6%, 자세하게는 모름과 전혀 모름을 합해 볼 때 73.4%로 나타나 조사응답자들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모르는 편으로 알 수 있음.

[표 1-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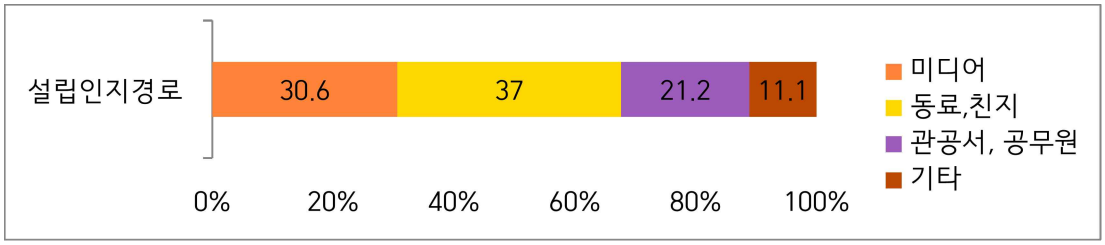


(단위: 명, %)

응답결과 / 설문문항	알고 있음 (매우잘알고있음+조금은알고있음)	모름 (자세하게는 모름+전혀모름)
사회서비스원 설립인지 여부	277(26.6)	762(73.4)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인지 경로에 따른 응답([표 1-3])을 보면 동료, 친지 등을 통해서 37.0%,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 30.6%, 관공서, 공무원 등을 통해서 21.2%, 기타 11.1%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응답자들은 동료, 친지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알고 있었음.

[표 1-3]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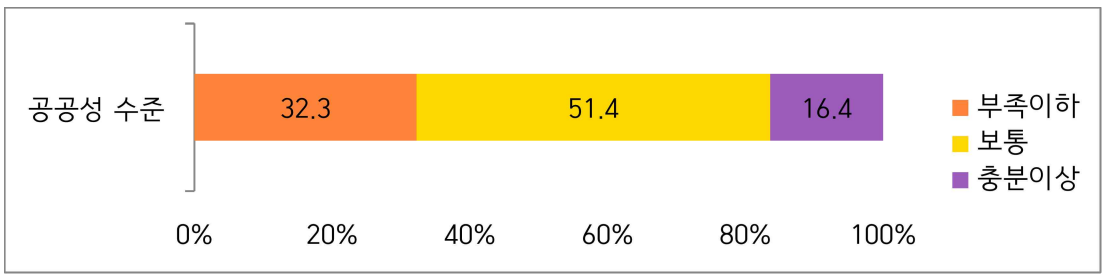
(단위: 명, %)

설문문항 \ 응답결과	신문,방송 인터넷등의 미디어	동료,친지등을 통해서	관공서, 공무원등을 통해서	기타
사회서비스원 설립인지 경로	143(30.6)	173(37.0)	99(21.2)	52(11.1)

(2) 현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의 평가 관련

○ 현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수준에 대한 응답([표 1-4])를 보면 매우 부족과 부족을 합해 볼 때 32.3%, 충분과 매우충분을 합해 볼 때 16.4%로 나타나 조사응답자들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부족한 편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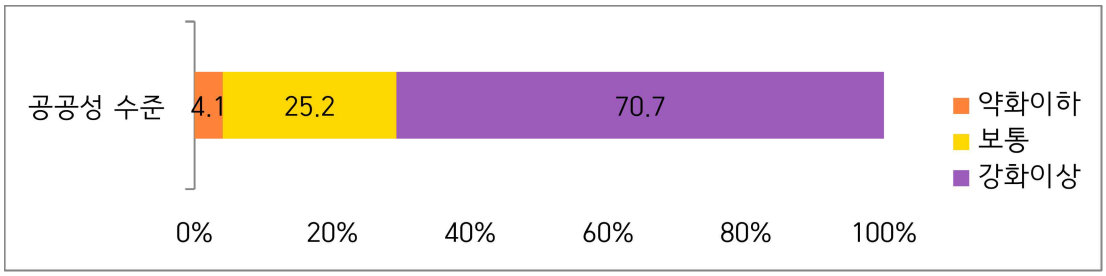


(단위: 명, %)

설문문항 \ 응답결과	부족이하 (매우부족+부족)	보통	충분이상 (충분+매우충분)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공공성 수준	422(32.3)	475(51.4)	151(16.4)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응답([표 1-5])를 보면 매우 약화와 약화를 합해 볼 때 4.1%, 강화와 매우강화를 합해 볼 때 70.7%로 나타나 조사응답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앞으로 강화되는 것이라고 응답함.

[표 1-5]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앞으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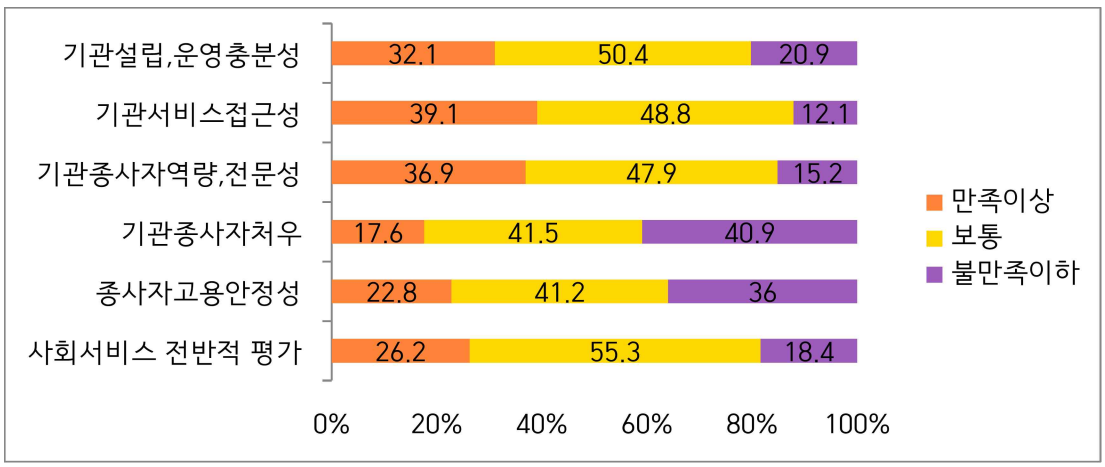
(단위: 명, %)

응답결과 / 설문문항	약화이하 (매우약화+약화)	보통	강화이상 (경화+매우강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앞으로 방향	37(4.1)	229(25.2)	641(70.7)

■ 현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의 만족도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만족도([표 1-6])의 문항별 조사응답자들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제공기관 설립 및 운영의 충분성, 서비스 접근성,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사회서비스 품질, 사회서비스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만족이상에 더 많이 응답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 종사자고용안정성에 대해서는 불만족 이하에 더 많이 응답하여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6]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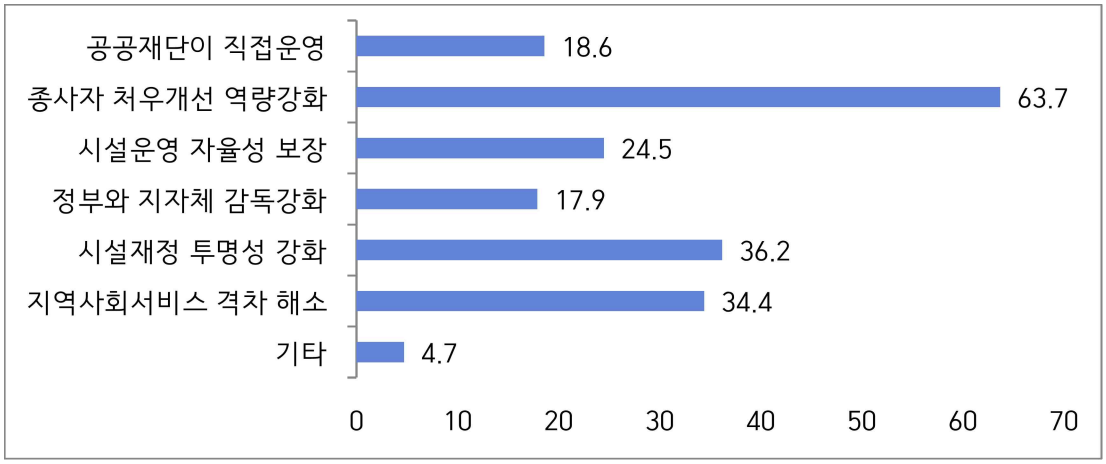
(단위: 명, %)

설문문항 \ 응답결과	만족이상 (매우만족+만족)	보통	불만족이하 (불만족+매우불만족)
제공기관 설립 및 운영 충분성	304(32.1)	477(50.4)	165(17.4)
제공기관의 서비스 접근성	312(33.0)	435(46.0)	198(20.9)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363(39.1)	453(48.8)	113(12.1)
사회서비스 품질	347(36.9)	451(47.9)	143(15.2)
제공기관 종사자의 처우	159(17.6)	376(41.5)	370(40.9)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206(22.8)	373(41.2)	326(36.0)
사회서비스 전반적 평가	248(26.2)	524(55.3)	175(18.4)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표 1-7])를 보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순위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54.2%이었고, 2순위는 '사회복지시설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36.2%, 3순위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 34.4% 이었음.

○ 따라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각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표 1-7] 전라북도 사회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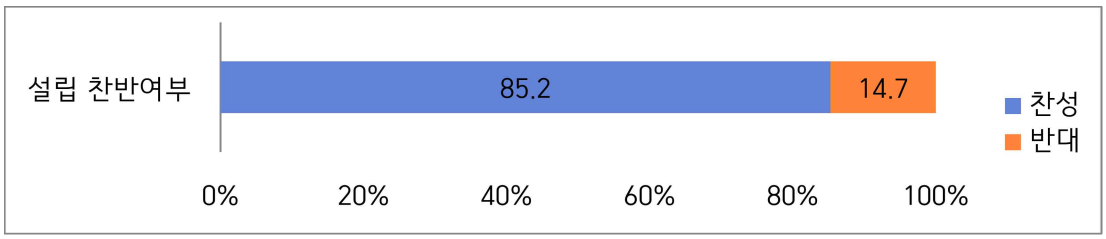
구분	응답결과	순위
공공재단(기관)이 직접 운영	193(18.6)	5순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650(63.7)	1순위
시설 운영의 자율성 보장	236(24.5)	4순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176(17.9)	6순위
사회복지시설(기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343(36.2)	2순위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	321(34.4)	3순위
기타	47(4.7)	7순위

3)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중요사업, 효과

(1)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찬반 관련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찬반여부에 대한 의견([표 1-8])을 보면 매우 찬성과 찬성을 합해 볼 때 85.2%,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해 볼 때 14.7%로 나타나 조사응답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1-8]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찬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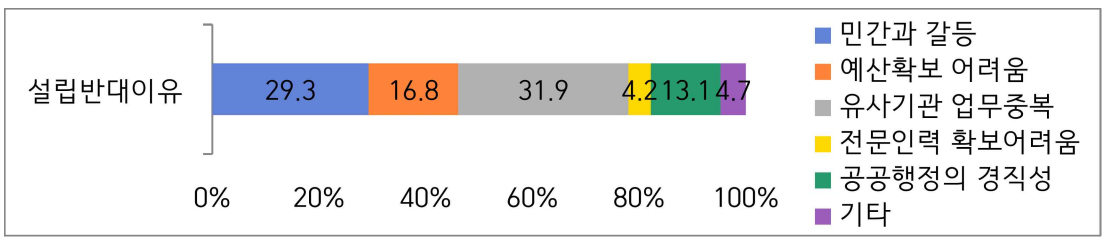


(단위: 명, %)

설문문항 \ 응답결과	찬성 (매우찬성+찬성)	반대 (반대+매우반대)
사회서비스원 설립 찬반여부	883(85.2)	153(14.7)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표 1-9])를 보면 '유사기관과의 업무중복'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민간기관과의 갈등' 29.3%, '예산 확보의 어려움' 16.8%, '공공행정의 경직성' 13.1%, '기타' 4.7%, '전문적 인력확보의 어려움' 4.2% 순이었음. 사회서비스원 반대를 하는 응답자들은 유사기관과 업무중복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었음.

[표 1-9]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반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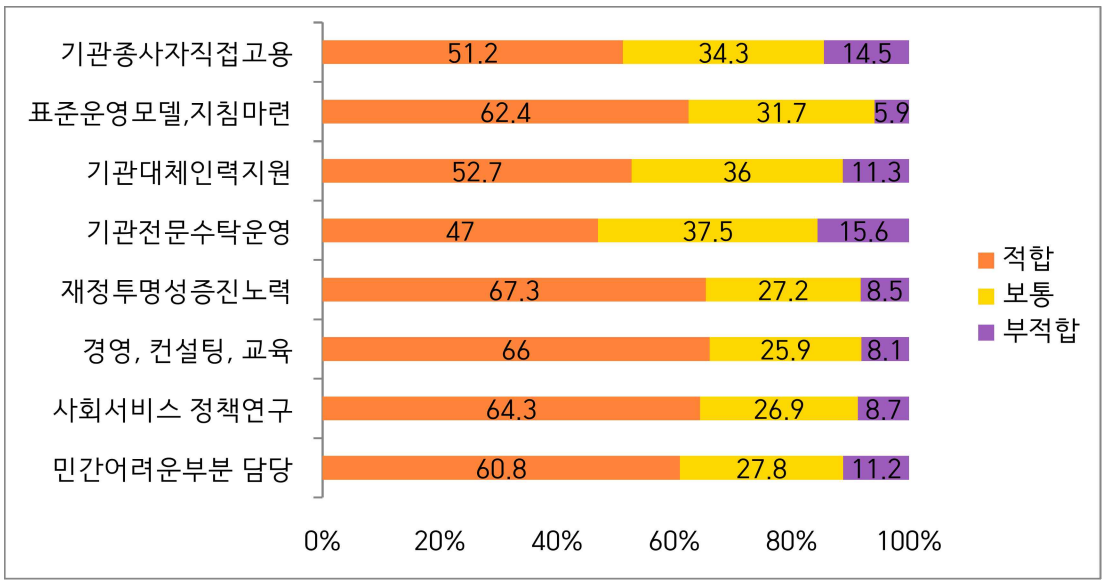
(단위: 명, %)

설문문항 \ 응답결과	사회복지 민간기관과 갈등	예산확보의 어려움	유사기관과 업무중복	전문인력 확보어려움	공공행정의 경직성	기타
사회서비스원 설립반대이유	56(29.3)	32(16.8)	61(31.9)	8(4.2)	25(13.1)	9(4.7)

(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추진사업별 적합 및 부적합의 여부에 대한 조사응답자들 응답 ([표 1-10])을 보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추진사업 중 '재정 투명성 증진노력'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응답했으며 '경영, 컨설팅, 교육',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표준운영모델·지침마련', '민간어려운부분 담당', '제공기관 대체인력지원', '제공기관 종사자 직접고용'. '기관전문 수탁운영 순으로 적합한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1-10]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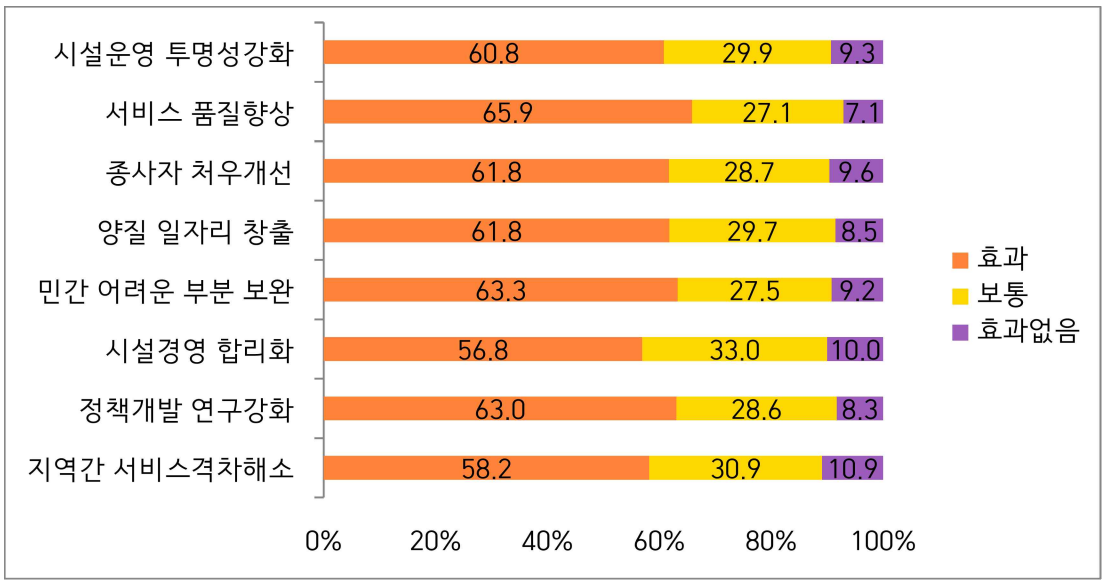
(단위: 명, %)

설문문항 \ 응답결과	적합 (매우적합+조금적합)	보통	부적합 (조금부적합+매우부적합)
제공기관 종사자 직접고용	472(51.2)	316(34.3)	134(14.5)
표준운영모델·운영지침 마련	579(62.4)	294(31.7)	54(5.9)
제공기관 대체인력지원	485(52.7)	332(36.0)	104(11.3)
제공기관 전문수탁운영	428(47.0)	342(37.5)	142(15.6)
재정 투명성 증진노력	614(67.3)	248(27.2)	77(8.5)
경영, 컨설팅, 교육지원사업	616(66.0)	242(25.9)	75(8.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597(64.3)	250(26.9)	81(8.7)
민간이 맡기 어려운 부문 담당	561(60.8)	258(27.8)	104(11.2)

(3)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효과에 대한 의견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효과에 대한 조사응답자들 응답([표 1-11])을 보면 조사 응답자들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효과 중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민간이 맡기 어려운 부분 보완',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 및 연구 강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도내 지역간 사회서비스격차해소', '경영컨설팅을 통한 시설경영의 합리화' 순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1-11]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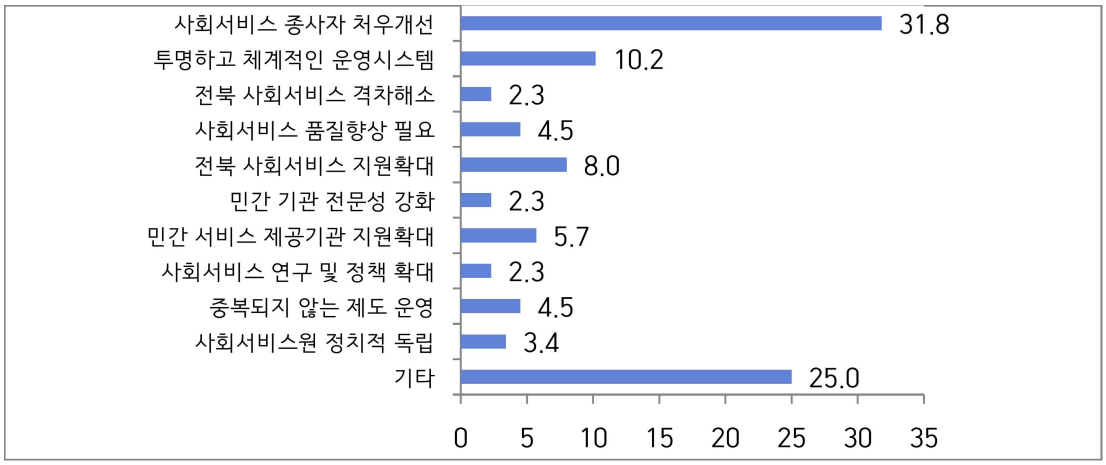


(단위: 명, %)

설문문항 \ 응답결과	효과 (매우효과큼+약간효과)	보통	효과없음 (별로효과없음+매우효과없음)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626(60.8)	308(29.9)	96(9.3)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678(65.9)	279(27.1)	73(7.1)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638(61.8)	296(28.7)	99(9.6)
양질의 일자리 창출	637(61.8)	306(29.7)	88(8.5)
민간이 맡기 어려운 부분 보완	652(63.3)	283(27.5)	95(9.2)
경영컨설팅을 통한 시설경영의 합리화	585(56.8)	340(33.0)	103(10.0)
사회서비스 정책개발 및 연구 강화	648(63.0)	294(28.6)	86(8.3)
도내 지역간 사회서비스 격차해소	599(58.2)	318(30.9)	113(10.9)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건의 사항 및 의견([표 1-12])를 보면 총 91명이 응답한 결과를 범주화 해본 결과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음. 가장 많이 건의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기대(직접고용, 호봉제, 일자리 보장 및 확대)' 였음. 응답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기대하고 직접고용, 호봉제 등의 일자리 보장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건의사항 및 의견



(단위: 명, %)

구분	응답결과	순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기대(직접고용, 호봉제, 일자리 보장 및 확대)	28(31.8)	1순위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필요	9(10.2)	3순위
전라북도 내 사회서비스 격차해소	2(2.3)	8순위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필요	4(4.5)	6순위
전북 도민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및 사회적 지지망 형성 역할 필요	7(8.0)	4순위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성 강화	2(2.3)	8순위
기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확대	5(5.7)	5순위
사회서비스 연구 및 정책개발 확대	2(2.3)	8순위
유사기관 서비스 중복되지 않는 제도운영	4(4.5)	6순위
사회서비스원의 정치적 독립필요	3(3.4)	7순위
기타	22(25.0)	2순위
모르겠음	3	-
무응답	949	-

제2절 초점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1. 초점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라북도 내외 전문가, 서비스 공급자 및 공무원 등 50명
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20.5.21. - 2020.7.13.
조사 내용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중요 기능 및 역할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전북사회서비스정책 발전방향 측면, 예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측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측면, 사회서비스 이용자 측면,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되어야 할 점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바람직한 운영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측면, 사업영역 측면, 조직구조 측면, 의사결정권한 측면, 민관협치 측면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표 1-13] FGI 응답자의 일반사항 : 성별, 연령, 지위, 경력, 기관유형

구분		전체(n=56)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1	55.4
	여자	25	44.6
연령대	30대	8	14.3
	40대	27	48.2
	50대	17	30.4
	60대	4	7.1
지위	시설 대표자·운영자	16	28.6
	종사자	32	57.1
	공무원·전문가	6	10.7
	도민	2	3.6
이용 및 근무 기관 유형	아동·청소년	12	21.4
	노인·장애인	18	32.1
	여성·가족·정신보건	2	3.6
	지역사회복지	15	26.8
	관공서·연구기관	9	16.1

2. 초점집단심층면접(FGI) 결과

[표 1-14] FGI 의견조사 종합

구분	의견사항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소외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체계와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등 창출
전북 사회서비스원의 중요 기능 및 역할	▪ 사회서비스의 표준화된 모델 개발 ▪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 인력수급,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복지서비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프라 설계를 위한 연구개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면 지역간의 서비스 질적수준 최소화 ▪ 민간서비스시설의 선도적 역할과 행복도시의 컨트롤 타워의 비전으로 지역사회의 좋은 영향 ▪ 사회서비스 운영자들의 사업운영에 대한 경쟁심리, 위축심리를 통해 투명성 확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정책 발전방향 측면	▪ 전문적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정책의 제안 및 제도화 가능성 향상 ▪ 어린이, 노약자, 취약계층의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강화될 것임 ▪ 지역 사정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적용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욕구해결에 유용할 것임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예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안정적인 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초기예산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임. 특히 사업안착을 위한 연구개발 R&D예산 투입이 필요함 ▪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함. 초기 기본자산 및 출연금 등 기초적인 재정투자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소외지역,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로 지역의 전반적인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 ▪ 우수한 인재들의 대도시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 사회복지 인력 증원으로 지역경제에서 소비문화가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됨

구분	의견사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측면	▪ 민간과 공공 사회서비스의 역할 분담을 강화 ▪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영역이 충돌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달체계를 적절하게 중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 ▪ 민간에서 직접서비스가 어려운 취약대상을 담당해야 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사회서비스 종사자 측면	▪ 좋은 일자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고용 ▪ 사회복지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균등한 처우 개선 필요
사회서비스 이용자 측면	▪ 서비스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고품질의 전문적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양한 욕구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자원 연계가 강화되고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 ▪ 서비스 중복, 누락을 막을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며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져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되어야 할 점	▪ 기존 민간 수탁 법인의 반감이 예상 ▪ 종사자와 운영법인 간의 갈등, 민간법인시설과 서비스원 운영시설 간 종사자 급여 편차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활동범위로 인한 갈등 ▪ 종사자의 계층화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움, 민간기관 운영의 어려움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존 시설운영 법인의 견제 ▪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함 ▪ 사회서비스원 수탁 시설과 민간 시설이 동등한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함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바람직한 운영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측면)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운영하는 것이 좋음 ▪ 공공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설립되어야 함.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공공직영형태로 도입하고 기존 행정조직에서 독립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전북지역의 모든 사회서비스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품질관리기능까지 겸비하여야 함
사업영역 측면	▪ 장기요양, 치매돌봄 시설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보육, 요양 등의 공공서비스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와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등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연구개발과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함

구분	의견사항
조직구조 측면	▪ 운영관리에서 인사노무관리, 재정관리, 시설 지원의 역할이 필요함 ▪ 연구조사에서 지역 사회서비스 현황과 방향성 제시와 같은 역할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산하 조직으로 세분화하여 보육, 돌봄의 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관련 기능에 따라 조직구성(정책개발, 교육지원, 운영지원 등)
의사결정권한 측면	▪ 공공출연기관의 독립된 의사결정 보장이 중요 ▪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함
민관협치 측면	▪ 공공과 민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경쟁구도가 아닌 민간과 공공의 협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운영과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함 ▪ 민간과 민간의 갈등, 민간과 공공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요구에 대한 합리적 제안이 필요함 ▪ 민관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민간기관에게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정보공유할 수 있어야함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임 ▪ 공공과 민간기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길을 찾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 설립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설립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필요함

제3절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

1. 전문가 자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라북도 내외 전문가, 서비스 공급자 및 공무원 등 14명
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20.5.1. - 2020.5.8. (1차) 2020.8.21. - 2020.8.27. (2차)
조사 내용	□ 1차: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 계획, 연구 설문지 구성, FGI 질문지에 대한 의견 □ 2차: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

2. 전문가 자문조사 주요 내용 및 반영

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특성 반영과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한 역할 설정

의견사항	수정 · 보완사항
▪ 전북의 현황과 도민과 종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체감도를 반영하고, 설립 반대 이유(중복성, 민간기관과의 갈등)를 해소할 수 있는 전북형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에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서비스원과 기존의 민간시설의 원만한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보육 및 요양관련 제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이 있으면 어떨지 제안드림	▪ 민간기관과의 협력에 관해 중점세부추진전략으로 반영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소통채널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논의하고 반영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원 준비단계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단체를 포괄하여 설립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임

2) 홍보 강화

의견사항	수정 · 보완사항
▪ 전북사회서비스원 설립인지 여부에 응답자의 41.5%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31.7%는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응답하여 70%이상의 응답자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립과정에서 적절한 안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자의 표본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경향도 있으나 앞으로 홍보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소통할 예정임. 이와 관련한 추진방향을 보고서에 포함함

3) 시설종사자 임금 격차 및 처우개선 기대

의견사항	수정 · 보완사항
▪ 고용안정성에 대한 응답이 보통 41.5 %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을 합하면 40.5%에 이르러 대다수의 종사자가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에 대한 의견이 50%를 넘어서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의 근거로 공공성 확보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문제는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본부 및 그 산하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지역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에 대한 표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공공성과 돌봄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요 논거임. 공공성이란 개념은 다차원적이지만 여기서는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 보완에 초점이 있음.

4)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역할, 조직, 기능 등

의견사항	수정 · 보완사항
▪ 전북연구원의 사회복지정책 연구 분야는 전북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자연히 흡수 통합되어야 할 기관으로 보일 정도로 근본적인 유사성이 높음.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지 않음. 따라서 전북연구원의 사회복지 정책연구 업무와는 중첩되지 않음. ▪ 전라북도는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정책개발 및 연구 인프라가 미진한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사회서비스원에 정책연구팀을 구성하기보다 기존 전북연구원의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기능 강화가 효율적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원의 주요기능이 공공센터나 국공립 복지시설 등 일부시설의 수탁 . 운영 ② 표준운영모델제시 및 경영컨설팅 제공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통합 . 관리 및 연계 등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종래의 전달체계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관리주체 및 지자체 등과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조율해가면서 역할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중앙에서 운용되는 보건과 연금 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은 직접적인 대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달체계에서의 차이가 있음.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보적인 관계임을 감안하여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서 논의할 필요성은 있음.
▪ 초창기 1원장, 1본부장 및 3개팀의 전문인력 채용과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에 관한 전문성 강화와 인력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단계에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설립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검토를 통해 인사원칙 및 채용규정을 마련

의견사항	수정 · 보완사항
시되었으며 함. 예를 들면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자격증, 현장경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원칙이 제시되었으며 함.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칭) 사회서비스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를 제안함.	할 계획임.

5) 기타 의견 반영

의견사항	수정 · 보완사항
▪ 타 지자체 사례분석이 들어갔으면 함. 타 지자체 추진 사례 중 유사 지자체와 전북의 특징적인 면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면 좋을 듯함	▪ 2019년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 지역에서 실시하였음. 이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사례분석을 포함시킴

제4절 공청회 결과

1. 공청회 개요

구분	내용
주제	전북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 안내 및 시민 의견 수렴
일시	2020. 9. 2(수) 10:00-12:00
방법	온라인(인터넷 'Zoom') * 코로나19 확산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
대상	도 및 시군 사회서비스 관련 담당 공무원, 사회서비스 관계자 및 이용자, 도민 등 100명
내용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정책 방향 소개, 연구용역 추진상황 설명, 토론, 질의응답 등

2. 공청회 의견 정리

1) 전북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관련

의견사항	의견에 대한 답변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정 중 민간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민관 합동의 논의테이블 필요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단계에서 민간 관련단체 대표가 포함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공급자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공공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서비스원에서 설치가 필요하며, 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직영에 따른 민간기관과의 갈등 해소방안 제시	▪ 용역자료에 수탁운영의 기준선(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시설 예측치에 대한 산출근거 정확해야 자료에 대한 신뢰도 높음	▪ 예측치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함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현재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이나 돌봄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관할 때의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 조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고 하여 기존 민간기관이 모두 이관되는 것은 아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에 제시함

2) 전북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관련

의견사항	의견에 대한 답변
▪ 보육과 돌봄의 취지는 다름에도 서비스원에서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보육도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으로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수 운영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북의 스타일에 맞는 '전북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서는 정책연구기능 필요	▪ 현재 전북지역의 복지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은 전북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북연구원과 기능 분담이 적절함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도민까지 교육이 필요	▪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의 교육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지점이며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
▪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전라북도를 통해 정책화 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을 통해 현장의 욕구에 대한 기반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도내 사회서비스제공 인프라가 농촌지역은 열악	▪ 지역 간의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세부추진전략으로 설정함
▪ 사회서비스를 위탁받는 기관의 관리자가 투명한 기관 운영을 할수 있도록 지원	▪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서비스원의 이사회 및 감사의 중요 역할이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추후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복지서비스이긴 하나 제공인력들은 언어재활사나 심리사, 예술치료사 등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잖아요. 중심을 사회복지사에 기준하는 것 같아서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다양한 직군에 대한 개입도 포함되는지?	▪ 전북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사 직종에만 제한시켜서 나갈 수 없음. 설립 시 종합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의 성숙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직종과 함께 어우려져 가리라 봄

제5장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제1절 타시도(2019년 설립) 사회서비스원 비교분석

○ 2019년 시범운영 중인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의 사회서비스원은 공공, 공정, 사회서비스 질, 복지컨트롤타워 등의 비전이 강조되며 4개 사회서비스원 공통적으로 국공립사회복지 시설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 컨설팅 및 대체인력 지원 등의 민간서비스가 주요사업으로 제시됨.

○ 대구와 경남의 경우 서울 및 경기와 달리 복지정책 개발 및 연구의 주요 역할도 제시되고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 복지컨트럴타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역사회서비스의 실천과 연구 역할을 병합한 것으로 보임.

[표 1-15] 2019년 설립 4개 사회서비스원의 미션, 비전, 목표, 주요 사업 비교

지역 / 목록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미션	-	-	복지협력공동체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	사람중심 경남복지
비전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	공정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행복도시를 이끄는 복지컨트롤타워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목표 (전략)	▫ 종사자 직접 교용, 직접서비스로 일자리 질과 서비스 질 제고 ▫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제고를 위한 공공· 민간 동반 발전 전략마련 ▫ 보육·요양·장애인 활동지원 등 주요서비스 정착뒤 서비스확대 ▫ 이용자 편의 확	▫ 국공립 시설운영 ▫ 직접서비스 제공· 신규사업 추진지원 ▫ 민간지원	▫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 확보 ▫ 좋은 돌봄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 대구형 복지정책의 개발, 연구 ▫ 지역돌봄의 표준 모델 개발	▫ 공공성(이용자만족도 개선) ▫ 전문성(종사자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 투명성(서비스제공기관 품질향상)

목록 \ 지역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대와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 국공립사회복지시설운영(장기요양시설 신규 또는 위탁만료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등) ▫ 종합재가센터설치,운영 ▫ 민간서비스기관 지원(컨설팅, 대체인력지원, 교육지원 등) ▫ 서비스 품질관리(표준운영모델,종사자 교육 체계화,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요양시설, 공공센터, 비영리 복지시설 운영 ▫ 종합재가서비스, 유사 서비스 통합제공, 커뮤니티케어 사업 연계, 다함께 돌봄 ▫ 시설 안전점검, 경영 컨설팅, 대체인력, 직무역량 강화, 시군 및 민관협력 지원	▫ 문제발생 국공립 시설의 우선 위탁으로 정상화 추진 ▫ 커뮤니티케어 조성(통합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등) ▫ 인권강화 및 학대예방 통합운영 ▫ 민간지원사업으로 적정수준 모델화 전파, 확대(대체인력지원 시설점검, 컨설팅 등) ▫ 구, 군의 국공립 시설 위탁	▫ 종사자 처우개선 ▫ 표준운영모델 개발 ▫ 민간운영 지원 ▫ 안전점검 지원 ▫ 체계적인 교육훈련 ▫ 사회복지정책 연구 ▫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 ▫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 4개 사회서비스원의 조직구성, 시설운영, 관련조례 비교는 [표 1-16]과 같음. 설립 시 20명~2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사회서비스원의 확대 개편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성숙기는 70명~80명으로 인원확대가 계획됨.

[표 1-16] 2019년 설립 4개 사회서비스원의 조직구성, 시설운영 비교

목록 \ 지역		서울	경기	대구	경남
조직구성	설립기	■ 구성 : 1실 4팀 22명 ▫ 내용 - 기획예산팀 - 운영지원팀 - 종합재가서비스팀 - 어린이집운영팀	■ 구성 : 3팀 20명 ▫ 내용 - 경영지원팀 - 시설운영팀 - 품질개선팀	■ 구성 : 1실 5팀 29명 ▫ 내용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팀, ▹ 민관협력지원팀 - 정책개발연구팀 - 돌봄서비스지원팀 - 시설운영지원팀	■ 구성 : 1본부 4팀 20명 ▫ 내용 - 경영기획팀 - 시설운영팀 - 민간지원팀 - 정책연구팀
	성숙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 예정	■ 구성 : 3부 11팀 70명 ▫ 내용 - 경영지원부 ▹ 기획관리팀 ▹ 운영지원팀 - 시설운영본부	■ 구성 : 1실 5본부 16팀 80명 ▫ 내용 - 기획관리실 ▹ 기획팀 ▹ 관리팀 ▹ 공익제보센터	■ 구성 : 4본부 10팀 70명 ▫ 내용 - 경영기획 ▹ 기획관리팀 ▹ 운영지원팀 - 시설운영

목록 \ 지역		서울	경기	대구	경남
			▹ 보육시설팀 ▹ 요양시설팀 ▹ 공공센터운영팀 ▹ 다함께돌봄팀 ▹ 종합재가운영팀 - 품질개선부 ▹ 품질개선팀 ▹ 대체인력지원팀 ▹ 노무지원팀 ▹ 안전진단팀	- 정책연구개발본부 ▹ 사회복지정책연구팀 ▹ 사회서비스정책연구팀 - 사회서비스시설운영본부 ▹ 직영시설 운영지원팀 ▹ 직영시설관리팀 - 돌봄서비스지원본부 ▹ 인력지원팀 ▹ 인력교육팀 ▹ 인력관리팀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본부 ▹ 지역사회서비스사업개발팀 ▹ 시설평가성과관리지원팀 - 민관협력사업지원본부 ▹ 협력사업개발팀 ▹ 협력네트워크운영팀 ▹ 민관기관운영지원팀	▹ 보육지원팀 ▹ 요양사업팀 ▹ 돌봄사업팀 ▹ 커뮤니티케어팀 - 대외협력 ▹ 시설관리팀 ▹ 인력관리팀 - 연구개발 ▹ 정책연구팀 ▹ 품질관리팀
시설운영		■ **구성 : 9개소 550명** □ **내용** - 국공립시설 5개소 70명 : 어린이집 - 종합재가센터 4개소 480명 - 민간지원사업 3명 : 경영컨설팅 등	■ **구성 : 12개소 396명** □ **내용** - 국공립시설 10개소 136명 : 어린이집, 요양시설, 돌봄, 공공센터 - 종합재가센터 2개소 190명 - 민간지원사업 70명 : 대체인력지원, 시설안전점검, 경영컨설팅, 인력수급지원	■ **구성 : 11개소 485명** □ **내용** - 국공립시설 9개소 205명 : 어린이집, 노숙인재활, 요양 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공공센터 - 종합재가센터 2개소 263명 - 민간지원사업 17명 : 대체인력지원, 시설안전점검, 경영컨설팅, 민관협력지원	■ **구성 : 9개소 419명** □ **내용** - 국공립시설 7개소 173명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 - 종합재가센터 2개소 212명 - 민간지원사업 34명 : 대체인력지원, 시설안전점검, 경영컨설팅, 교육훈련지원
		* 2022년 45개소 3,944명 확대 계획	* 2022년 126개소 4,272명 확대 계획	* 2022년 36개소 1,497명 확대 계획	* 2022년 33개소 1,471명 확대 계획

제2절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방향

1. 설립 기본방향 개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등)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설립명칭** :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 **설립목적**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으로 도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제공기관) 시설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종 사 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이 용 자)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서비스 선택권 확대, 지역·시설 간 격차 해소 등에 따른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설립형태** :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 공익법인)
○ **설립시기** : 2021년 7월 개원 목표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예정)
○ **자본금(기본재산)** : 10억 원

○ **재정지원 계획** : 자본금(기본재산) 및 본부 소요 운영비(연) 출연
- (기본재산) 설립 시 도비 10억 원 출연('21년 본예산 반영)
- (설 치 비) 5억원(국비 100%) (설치비는 전액 국비보조이나 추가비용이 발생 할 경우 도비 부담)
- (운 영 비) 2021년 9.6억원(국비 50%, 도비 50%) *6개월 분
  2022년부터 19.2억원(국비 50%, 도비 50%)
- (수탁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없이 각 시설 현행처럼 자체 수입(보조금 등) 내 독립채산제 방식 운영

○ **조직·인력** : 원장, 1본부 3팀 총 20명 (종합재가센터, 수탁시설 인력은 별도)

2. 비전,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1) 비전 및 추진방향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이를 통한 복리 및 삶의 질 증진을 기치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환경 조성'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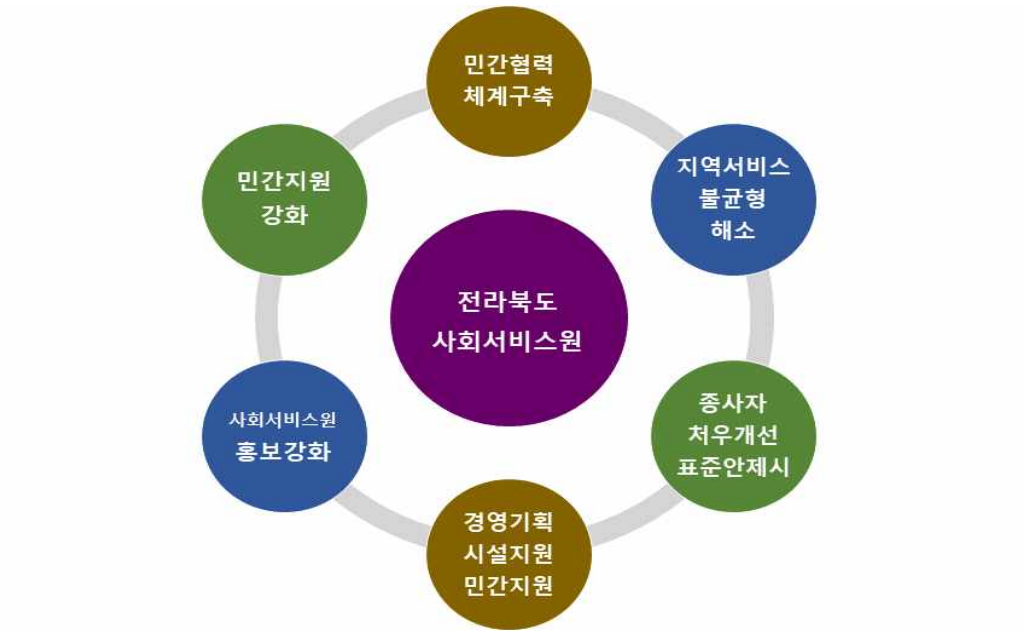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산재된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를 집결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공적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이를 위해 수요자위주의 서비스, 균질화된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기관운영을 기본전략으로 정함.

[그림 1-1]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비전 및 추진 전략

세부추진방향	수요자 위주 서비스	균질화된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기관운영
	▫ 시장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해소 ▫ 사회서비스 틈새 보완, 확장된 서비스 제공 ▫ 클라이언트 맞춤형 서비스 개발	▫ 표준운영모델 및 서비스 표준화 전파 ▫ 대체인력 지원 ▫ 지역 간 사회서비스 불균형 해소	▫ 재가서비스 운영으로 공공성 강화 ▫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 재무·회계·법무·노무 등 경영 지원

2) 세부추진전략

[그림 1-2]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세부추진전략



○ **민간사회서비스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전라북도의 민간사회서비스기관의 통제 및 경쟁기관이 아니라 협조와 상생의 기관임.

○ **지역의 사회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소:**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환경은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 표준안 제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열악한 여건의 사회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로 나타남.

○ **경영기획, 시설지원, 민간지원의 3대 기능 중점:** 사회서비원의 기본 3대 기능인 경영기획, 시설지원, 민간지원에 중점을 둠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홍보강화:** 사회서비스원의 낮은 인지도 개선 필요.

○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의 민간지원 강화:** 민간과의 협력 관계가 가장 두드러진 민간지원팀 역할 강화

3) 주요사업 내용

○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운영 및 종사자 직접 고용

■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도 및 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과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 국공립 시설 등 우선 위탁
- 도 및 시군에서 서비스원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본부 직원 및 소속 시설 직원 등 일반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여 고용계약을 통해 신분 불안 해소

- 단, 기존 운영시설을 수탁(위·불법 발생, 평가 결과 저조 시설 등)하는 경우 종사자 고용승계

■ 운영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종사자 역량·자질 향상, 시설 운영방식 개선 등 추진

○ 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도내 14개 시군 중 재가서비스 충족율이 낮은 시군 중심으로 종합재가센터 2개소 설치하여 지역 간 사회서비스 불균형 해소 주력, 2025년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설치 추진.

■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 재가요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민간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등

■ 민간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

- 민간에서 시설 운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지원
-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 점검 전문가 등 지원
-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전파, 관련 교육 실시

■ 기타 사회서비스 체계적 관리 지원

-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

3. 단계별 추진방향 개요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발전단계는 [그림 1-3]와 같이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

[그림 1-3]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발전단계별 추진방향

	준비단계	설립단계	안정단계	성숙단계
주요사업	▫ 전라북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조례 제정 ▫ 설립추진단 및 시군과 실무협의체 구성	▫ 1본부 3팀 20명 구성의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개소 및 운영 ▫ 8개 산하시설 종사자 331명으로 설립	▫ 1본부 3팀 38명으로 충원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진단 및 개선 ▫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확대 및 종합재가센터 확대	▫ 3부 7팀 60명으로 확장 ▫ 시군별 사회서비스 표준운영지침, 평가툴 제공 및 수요공급 분석 등 지자체 지원 ▫ 국공립 직영 및 위탁기관 확대

○ **준비단계(2020년 - 2021년 하반기 설립 시까지)**

- 2020년 12월 전라북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21년 3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함.
-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등의 1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월 1회 운영
- 14개 시군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 **설립단계(2021년 하반기 설립 시부터 - 2022년)**

- 1본부 3개팀 20명으로 구성함.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등 8개 산하시설 종사자 331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하며, 2022년 종합재가센터를 추가 2개소 증설

○ **안정단계(2022년 - 2023년)**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단계에 관한 전반적 운영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욕구에 보다 긴밀하게 반응하는 사회서비스원 체계 및 사업을 구축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을 통해 내실화를 다짐.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 2023년 각각 3개소 증설

○ **성숙단계(2025년 -)**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및 역할 확장. 국공립 시설 직영 및 수탁 기관 확대. 종합재가센터 4개소 증설
- 사회서비스 표준운영지침, 평가툴 제공 및 각 시군별 수요공급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지원 강화를 통해 도내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에 주안을 둠

제3절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모형

1.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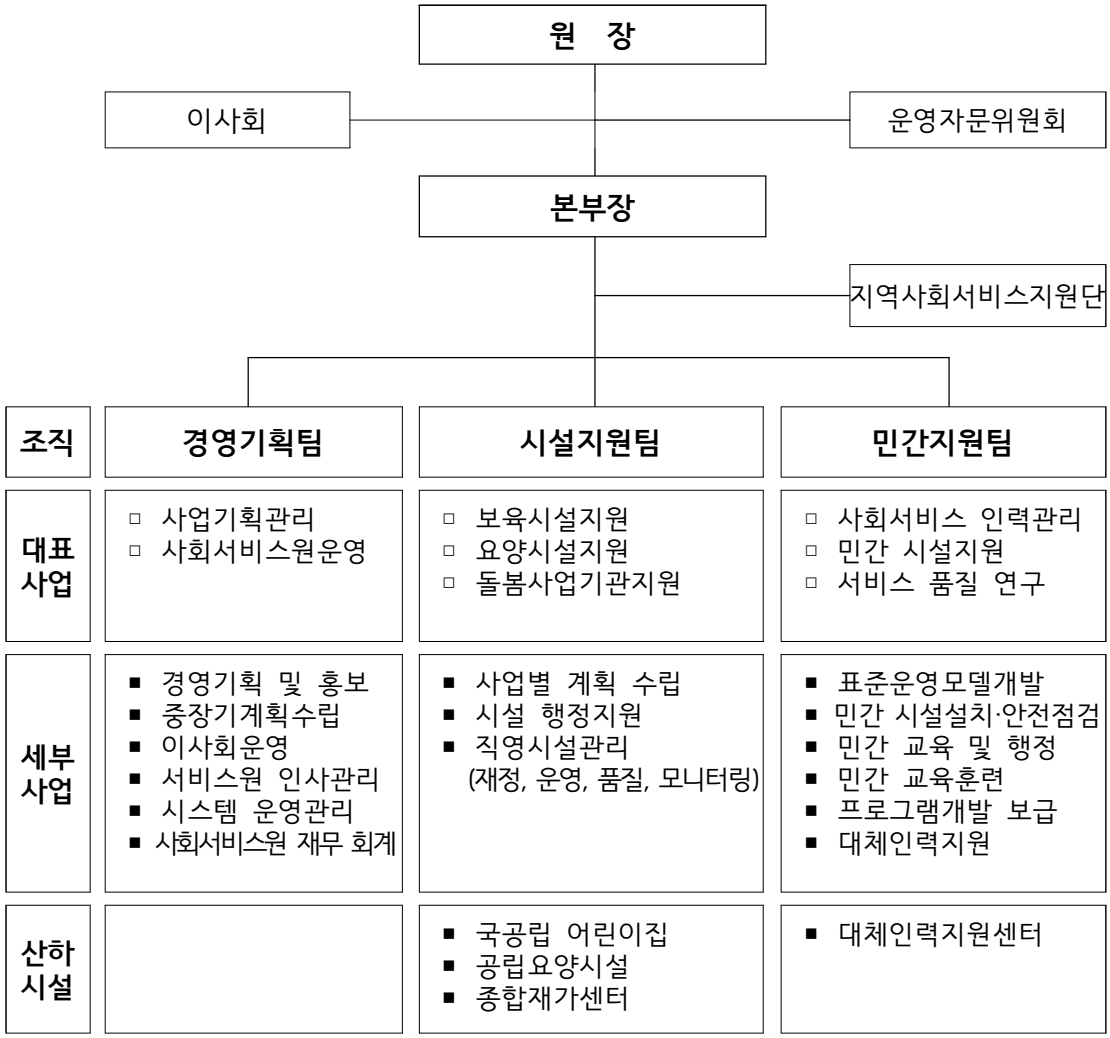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설립단계, 안정단계, 성숙단계의 과정을 통해 역할과 임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각 단계별로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구성을 확대하고자 함.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단계(2021.7～'2022년)** 조직구성은 1본부 3팀 20명으로 구성함. 조직구성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경영기획팀, 시설지원팀, 민간지원팀으로 구성함.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단계(2023년～2024년)** 조직구성은 설립단계의 1본부 3팀제를 유지하며, 각 탐의 인력을 충원하여 사업 내실화에 주력함.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본부인력은 기존 20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되며, 이는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의 확대, 업무의 전문화 등을 통한 인력보강이 필요함을 감안한 사항임.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성숙단계(2025년)**는 추가 인원충원과 함께 설립단계 및 안정단계의 1본부 3팀제를 확대 개편하여 3부 7팀제로 구성하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본부인력은 안정단계의 38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되며, 이는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의 확대, 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서비스원의 전문화, 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성숙단계 계획인원 등을 고려한 사항임.

[그림 1-4]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단계 조직 및 인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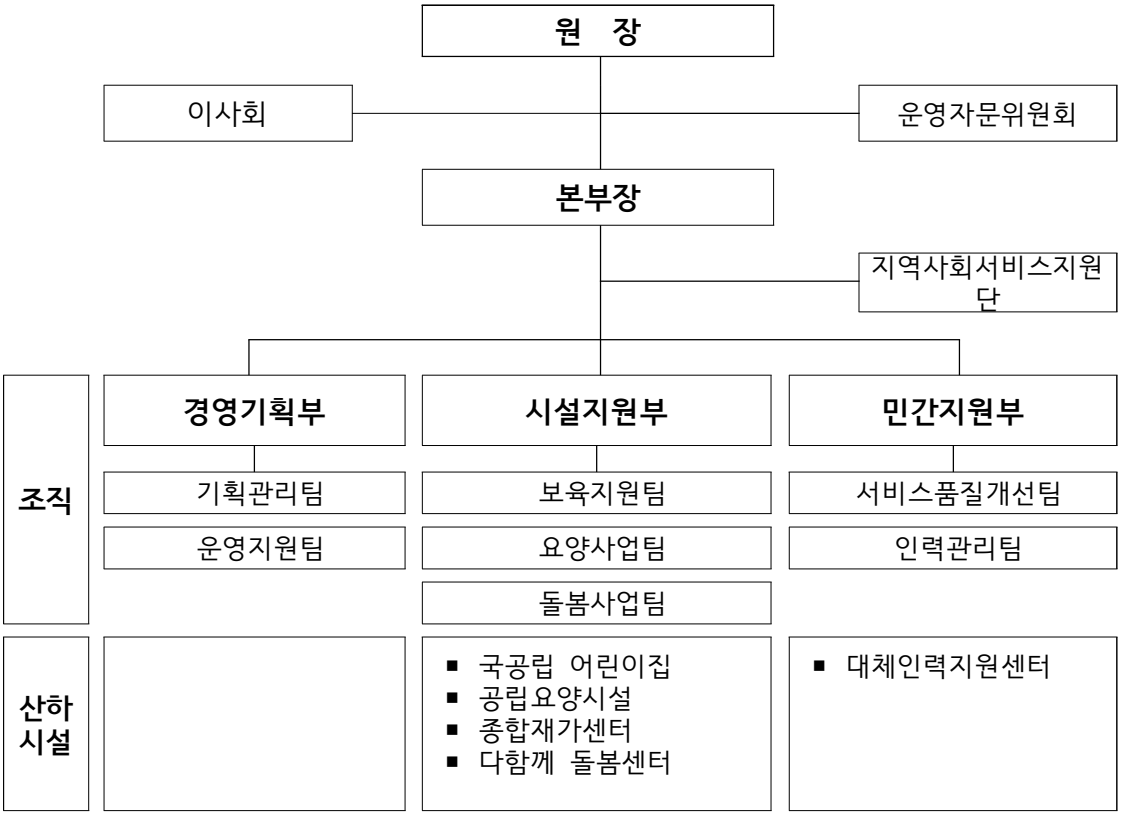


구분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원 장	1	1						
본 부 장	1		1					
경영기획팀	5			1	1	1	1	1
시설지원팀	6			1	1	1	1	2
민간지원팀	7			1	1	1	2	2
합 계	**20**	**1**	**1**	**3**	**3**	**3**	**4**	**5**

[표 1-17]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단계 업무분장 계획

기능구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인원(명)
원장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총괄	1
본부장	▪ 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 총괄	1
경영기획팀	▪ <기획> 경영기획 및 평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행정> 이사회,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 운영; 급여 지급, 복지후생, 복무 관리, 근태관리 등; 조직, 인사 채용; 정관 및 조례 관리 등 ▪ <대외협력 및 홍보> 대외협력 업무, 보도자료, 언론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 ▪ <예산> 계약 및 재산관리; 예산 편성 및 운영 등	5
시설지원팀	▪ <산하시설 지원>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등 ▪ <직영시설 운영> 직영시설 재정, 운영, 품질, 모니터링 등	6
민간지원팀	▪ <대체인력사업> 인력수급 지원 및 대체인력사업 관리 등 ▪ <교육> 종사자 직무교육 및 이용자 교육 등 ▪ <컨설팅> 노무, 인사, 회계 등 컨설팅 사업 등 ▪ <품질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간 서비스품질연구 등 ▪ <네트워크> 지역사회서비스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역간 사회서비스 불균형해소를 위한 전략개발 등 ▪ <기타>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7
합계		20

[그림 1-5]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성숙단계 조직 및 인력계획



구분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원 장	1	1						
본부장	1		1					
경영기획부	1			1				
- 기획관리팀	5				1	1	1	2
- 운영지원팀	4				1	1	1	1
시설지원부	1			1				
- 보육지원팀	9				1	2	3	3
- 요양사업팀	8				1	2	2	3
- 돌봄사업팀	10				1	2	3	4
민간지원부	1			1				
- 서비스품질개선팀	11				1	3	3	4
- 인력관리팀	8				1	2	2	3
합 계	**60**	**1**	**2**	**4**	**6**	**8**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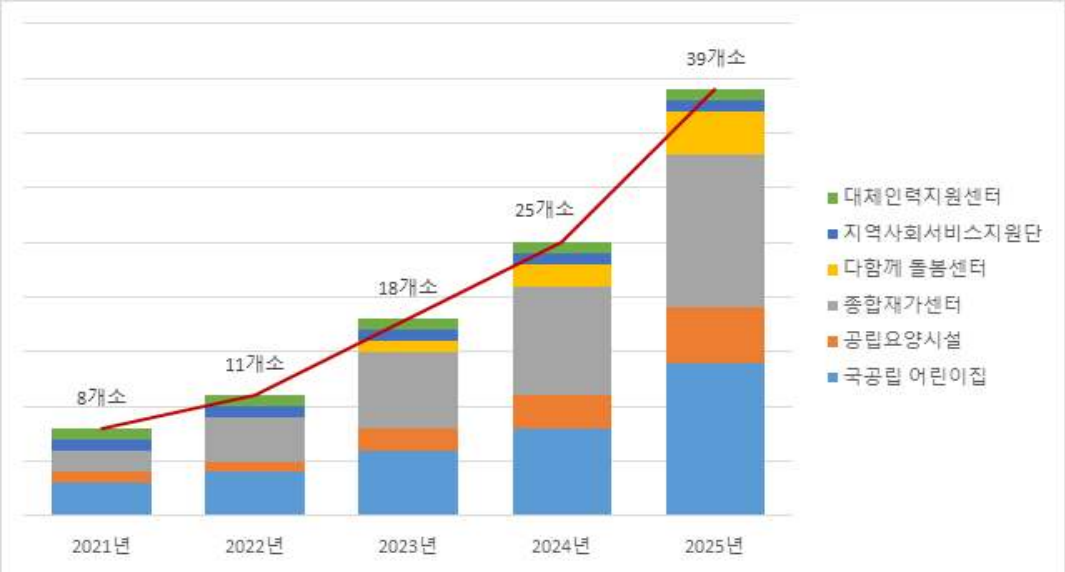
[표 1-18]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성숙단계 업무분장 계획

기능구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인원(명)
원장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총괄	1
본부장		▪ 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 총괄	1
경영기획부	경영기획부 부장	▪ 경영기획부 사업총괄 및 운영, 관리	1
	기획 관리팀	▪ 경영기획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경영평가 관련 업무 ▪ 이사회,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 운영 ▪ 대외 협력 업무 ▪ 정관 및 조례 관리 ▪ 보도자료, 언론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	5
	운영 지원팀	▪ 본부 인사(평가, 승진, 채용, 복무), 예산편성 및 운영, 세무 ▪ 급여지급, 복지후생, 복무 관리, 근태관리; 조직, 인사 채용 ▪ 시스템 운영관리 등 정보화 등	4
시설지원부	시설지원부 부장	▪ 시설지원부 사업총괄 및 운영, 관리	1
	보육 지원팀	▪ 보육 및 아동돌봄 관련 직영 및 위탁 시설관리(재정, 운영, 품질, 모니터링 등) (예,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등	9
	요양 사업팀	▪ 요양관련 직영 및 위탁시설관리(재정, 운영, 품질, 모니터링 등) (예, 공립요양시설)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등	8
	돌봄 사업팀	▪ 돌봄관련 직영 및 위탁시설관리(재정, 운영, 품질, 모니터링 등) (예, 종합재가센터)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등	10
민간지원부	민간지원부 부장	▪ 민간지원부 사업총괄 및 운영, 관리	1
	서비스 품질 개선팀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 지역시설관련 노무, 인사, 회계 등 컨설팅 사업 수행 ▪ 프로그램 개발 보급, 민간 서비스품질연구 ▪ 지역 사회서비스시설 네트워크 구축 ▪ 사각지대 발굴, 민관서비스연계, 자원관리 등	11
	인력 관리팀	▪ 인력수급 지원 및 대체인력사업 관리 ▪ 사회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교육 등	8
합계			60

2. 산하시설 운영 계획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수탁시설 및 종사자 수는 8개소 331명을 시작으로 2025년 성숙단계에서는 35개소 1,976명까지 확대함. 수탁시설 인력은 직접 고용 원칙이며 시설을 설치 운영·지원하는 시군의 예산여건, 각 개별사업 내 구분된 수입과 독립회계 범위 내 인력이 운영됨

[표 1-19]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발전 단계별 산하기관 운영 종합



구분	설립단계 (2021.7-2022)		안정단계 (2023-2024)		성숙단계 (2025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60명	4개소 80명	6개소 120명	8개소 160명	14개소 280명
공립요양시설	1개소 50명		2개소 100명	3개소 150명	5개소 250명
종합재가센터	2개소 200명	4개소 400명	7개소 700명	10개소 1,000명	14개소 1,400명
다함께 돌봄센터	--		1개소 5명	2개소 10명	4개소 20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개소 6명		1개소 6명		1개소 6명
대체인력지원센터	1개소 15명		1개소 20명		1개소 20명
합 계	8개소 331명	11개소 551명	18개소 951명	25개소 1,346명	35개소 1,976명

* 위 표는 기본 안을 제시하며, 사회서비스원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단계를 거치며 시군의 협조를 통해 수탁시설 유형 및 개소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

제6장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분석

제1절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

○ 타당성 검토의 자세한 검토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에 비해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은 타당성 검토 대상임.

○ 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하기 전 사업의 적정성과 수행 방식, 주민·지역 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출자·출연의 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을 추진해야 함.

○ 연관기준 :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름.

○ 범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때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대한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타 기관과 유사 중복 기능 검토,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적정 자본 구조 분석,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제2절 분야별 타당성 검토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중 국공립시설 직업 운영관리 및 종사자 직접 고용에 대한 부문 등에서 민간의 우려가 다음과 같이 있는 만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전까지 다양한 의견수렴 전문가 심층논의 이해관계자 워크숍, FGI, 설립추진단 등 2020년까지 9월까지 진행하여 보완하였음.

○ **법률적 적합성:**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대상사업인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 사업, 직접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민간 제공기관 지원사업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 안정적 설립운영과 설립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재원은 24.6억원 수준으로 국비9.8억, 도비 14.8억을 출연하여 마련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약 182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인건비는 20명의 본부 직원에 594백만 원, 2022년 20명에 1,225백만원, 2023년 38명에 2,330백만원, 2024년 38명에 2,400백만원과 안정기인 2025년에는 60명에 3,858백만원으로 계획됨.

○ 2021년 설치비는 본부 설치비 및 종합재가센터 2개의 설치비를 포함하여 5억원, 2022년 설치비는 종합재가센터 2개의 설치비를 포함하여 4억원, 2023년과 2024년의 설치비는 종합재가센터 3개의 설치비를 포함하여 각 6억, 2025년의 설치비는 종합재가센터 4개의 설치비를 포함하여 8억을 추정하여 산정함.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5개 복지시설 컨설팅으로 28백만원 수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1-20] 연도별 운영예산 추정(5개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인건비[1)]	595	1,225	2,331	2,401	3,859	10,411
설치비[2)]	500	400	600	600	800	2,900
운영경비[3)4)]	365	695	1,317	1,247	1,300	4,924
계	**1,460**	**2,320**	**4,248**	**4,248**	**5,959**	**18,235**

1) 5장에 의거하여 21, 22년 20명, 23, 24년 38명, 25년 60명으로 산정하여 추정하였음. 2018년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른 전국 지방출자 출연기관 평균 연봉에 연평균 실질 임금상승률 2.5%를 감안하여 추정함.
2) 2021년 '설치비'에는 본부설치비 및 종합재가센터 2개의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임
3) 2021년부터는 사업비용은 제외하고 순수 본부 운영경비만 반영함
4) 자본금 성격의 출연금은 제외

○ **경제적 타당성:**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설립 후 20년 동안의 운영을 기준으로 비용 및 편익을 구한 결과 20년 동안 운영의 총 편익은 84,076백만원, 비용은 67,823백만원으로 나타남. 비용 및 편익을 순현재가치로(NPV)로 환산한 B/C비율은 1.14로 보여지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됨.

○ **사업수행방식 적절성:** 직접운영 방식은 정치적/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유연성과 전문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민관 교량역할 수행을 위해 타 시도사례와 같이 도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설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및 정부 사회복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등의 계획 기조와 대체로 부합하는 사업이라 여겨짐. 사회복지사업의 문제해결 접근은 공공성과 전문성, 연계성을 유지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중장기적인 역할이 중요함

2.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표 1-21]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매우 효과 큼	약간 효과	전체 긍정적 예상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23.9	36.9	60.8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27.6	38.3	65.9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24.4	37.4	61.8
양질의 일자리 창출	26.0	35.8	61.8
민간이 맡기 어려운 부문 보완	23.4	39.9	63.3
경영 컨설팅을 통한 시설경영합리화	20.5	36.3	56.8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 및 연구 강화	24.8	38.2	63.0
도내 지역 사회서비스 격차해소	23.3	34.9	58.2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전라북도 도민 대상의 본 연구 설문조사 및 전문가 대상의 FGI 연구 결과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

○ 전북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역량강화(54.2%), 공공재단이 직접운영(18.5%)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과 직접 관련됨.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85.2%)를 차지하며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효과에 대해 모든 설문영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또한 다수를 차지함. 설문조사 및 전문가 대상의 FGI에서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주민복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기간인 2021년도 총 투자비 14.6억원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5.84억원으로 가장 높고 고용 유발효과 20명 부가가치 파급효과 11.44억원으로 추정됨.

○ 2021년~2025년 5년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의한 생산파급효과는 약 227억 원, 고용 파급효과 176명, 부가가치 파급효과 약 100억원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산하시설 직원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직영 운영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 전북 도민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사업개발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전북 도민들의 생활 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인력의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세 수입 증가 중에 지방소비세가 연평균증가율 5.6%으로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지방소비세는 2021년엔 7,720억원, 2025년 8,841억원으로 증가를 보임.

○ 2021년 전라북도의 복지관련 예산은 3,160억으로 사회서비스원 초기투자비와 운영비로 총 투입되는 도비 14.8억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의 2025년까지 재정수입 흐름은 매우 양호하며 투자가용재원의 규모도 2021년 8조 2천억 원에서 2025년 10조 4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복지관련 예산도 2021년을 포함한 직전 5년간 연평균 8%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연도인 2021년의 경우 전라북도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3조 4천억 원으로 그 중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도비 부담금 약 14.8억원은 0.01% 미만으로 재정 건전성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타 기관과 유사 중복 기능 검토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3대 주요사업인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운영 및 종사자 직접 고용, 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등은 전라북도 소재 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연구원)과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음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전라북도 복지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며 시설경영 및 프로그램 개발을 바탕으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수행함. 또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원활한 서비스 수행을 위해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균형적인 배분으로 중복을 방지할 계획임.

[표 1-22] 사회서비스원과 민간기관과의 비교

구분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 조례
목적	▪ 사회복지에 있어 국민참여를 도모하며 사회복지 발전과 증진에 기여 ▪ 사회복지 관련 조사와 연구, 여러 복지사업 조정 ▪ 사회복지활동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	▪ 사회복지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복지 향상을 도모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및 보급	▪ 지역주민 관심 유도와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변화 유도
조직설치 근거	▪ 민간중심의 자발적 협의기구 ▪ 법률로 자체정관 규정	▪ 민간중심 자발적 기구 ▪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 정관 규정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거함
재정	▪ 후원금, 보조금, 회비 등으로 구성됨	▪ 회원비, 보조금 등	▪ 보조금, 출연금 등
구성	▪ 기관, 단체, 복지, 전문가 등의 회원제	▪ 중앙법인의 지부기능	▪ 이사회(감사)
기능 역할	▪ 사회복지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 사회복지자원 연계협력 ▪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 사회복지사업 조성 등	▪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 교육훈련 및 전문지식 개발 및 보급 ▪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증진, 취업정보 제공 ▪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홍보 및 출판 ▪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 교육 및 협력	▪ 자원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
실제 수행사업	▪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 사회복지 근무자 전문성 강화교육 ▪ 사회공헌 사업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증진 ▪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 ▪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및 처우개선 사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 메일 및 웹진 등 홍보 출판사업	▪ 지역복지특화사업, 시설 평가(지원), 컨설팅 ▪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 ▪ 전북형 복지전달체계 연구,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도민인식개선 교육, 민간종사자 전문교육 등

6.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 2021년 설립초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3개팀 20명으로 사업을 추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안정단계인 2023년부터 38명, 성숙단계인 2025년부터 60명으로 확대할 것임. 이러한 인력확대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강화 및 산하시설 확대에 따른 것으로, 운영 중인 타 사회서비스원의 중장기 계획과 비교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채용원칙: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직원 및 직영시설 직원 공개채용: 설치주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채용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을 수탁하게 되는 경우, 직원 고용승계 원칙

○ 고용계약: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에서 본부·직영시설 직원 직접고용으로 신분불안해소

○ 인사관리: 운영시설 전체의 통합 인사관리로 승진 등 비전 제시, 우수 인력 안정적 확보 추진

○ 급여지급: 인건비 산정기준은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른 2018년도 전국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균 연봉을 참고하였으며, 연평균임금상승률 3%를 감안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건비산정

○ 공공기관 직무급제와 연계하여 기준 개선하며 재가서비스 종사자는 업무량 확보를 통해 고정월급제를 기본으로 함

7. 적정 자본 구조 분석

○ 안정적 운영지원과 설립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최초 설립시 전라북도 도비 100%로 출연금을 부담하여 최초 설립비용 14.8억원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설립방안('18. 10)기준에 따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시 도비인 출연금으로 충당될 예정으로 현물로 출연(또는 출자)되지 않을 예정임

8.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중 전라북도로부터 이관사업이 없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특화사업 개발, 시설컨설팅, 평가, 인증 등으로 운영할 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더라도 공무원 인력 감축 요인은 없음.

○ 다만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이후 민간위탁기관 등 기존 운영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보장 부분과 연관하여 기타 비슷한 여건의 직업군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신규로 직접 채용하는 본부 직원, 시설 직원과 기존시설 종사자들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향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재단 운영이 만료되거나 법인이 해체될 시 고용 승계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